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 14:13-21)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홀로 빈들에 머물고 계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촌 형이자 복음사역의 동지요 특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한 세례 요한의 비통한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후 배를 타고 멀찍이 나가시어 홀로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몰려 왔습니다. 무리 중에는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14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전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실 때 그 분 안에 있는 능력이 흘러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 충만한 사랑의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드디어 그 능력이 발휘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이 너무도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종일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때는 저물었고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16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실감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줄거를 고민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담긴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은 이 보잘것 없는 물고기와 떡이 없어도 얼마든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바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최선은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초라하지만 주님께 최선을 다해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Matt. 14:13-21)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ext begins the situation in which Jesus heard the news of John the Baptist's death and he went to a solitary place. After Jesus heard about the sad death of John the Baptist, His cousin, the coworker of the Gospel, especially, who completely carried out the mission of prophet in preparing the road for Jesus, He withdrew by a boat privately to a solitary place and cried mournfully.

And there, upon hearing the news of Jesus who was at a solitary place, people gathered together to the shore.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aled their sick" (v. 14)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the heart of Jesus who has compassion on us. There is always an omnipotent power in Him.

Therefore, when you have a mind of compassion, you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omnipotent power poured out from him. Just like this, the fact that we have compassion each other is from Jesus.

As we have the power of God's children, we also have an amazing power. Moreover, when we begin to unbearably have compassion, pity, and love in our mind, its ability is shown as a result.

But the problem we have is that we don't have a mind to have passion on another people. Without a passionate love, we live our life with a cold and chilly mind.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problem. All crowds who stayed beside Jesus all day long did not have anything to eat. It was only an empty place that has nothing around it. It was already getting late and there were many people. And there, unexpectedly, Jesus told them the foll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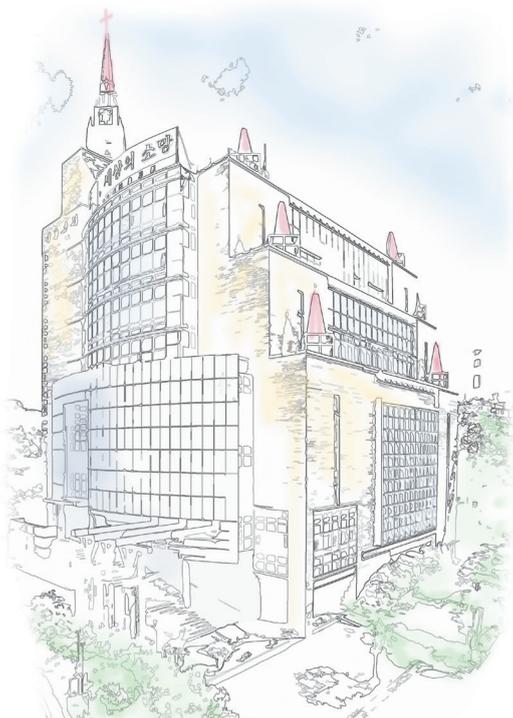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v. 16).

In Jesus disciple's situation this wasn't reasonable and realistic for many reasons. But His word means that we must not live our lives by worrying how we can give them something. For them, they had only five loaves of bread that were brought by a young boy and two fish in a box. All of us really know that Jesus made a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Jesus who makes something out of nothing feeds crowds as much as they like. In the meantime, he hopes that we will do our best.

My beloved Christian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we are so smart. Our sense of realism is so great that we may limit Jesus power. However, when we completely believe Jesus and do our best, our best way becomes the passage of Jesus' miracle. We must love each other, have compassion, and use the ability of Spirit as much as we please within us. By doing our best for Jesus though we are poor, today I sincerely hope that you and I will experience a mirac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홍해작전 승전보고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14년 홍해작전은 6월 6일(금)~ 25일(수)까지 17일 동안 17,114명이 참전하여 은혜중에 진행되었다.

박노철 담임목사를 감사로 "분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히 11:16)라는 주제로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 각 교회학교 백일장과 4행시, 영문7행시 등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4행시, 7행시

- 대상 : 박주원(초등부 4-5) 이승필(고등부 1-4) 김정숙(장년부 16-8) Gaichuang Panmei(7행:영어예배부)
- 금상 : 홍성현(초등부 5학년) 최소정(고등부 2) 나선웅(고등부 2),윤여경(청년부) 임지윤(7행:영어예배부)
- 은상 : 유주영(유년부 3-6) 김민선(유초등 3-1) 강지윤(고등부 3) 이상진(고등부 1-6) 진영숙(장년부 3-18) 이남숙(장년부 4-11) 박성민(7행:청년부) 이영숙1(7행:장년부)

- 동상 : 박지훈(유년부 3-4) 이해나(7행:유년부 3-2) 신지호(초등부 6-1) 정서현(초등부 6-3) 박재현(중등부 3-4) 공신혁(7행:중등부 3-1) 김민선(고등부 3-2) 김성경(고등부 3-4) 이루리(7행:고등부 3-4) 최지훈(사랑부) 김상태(장년부 4교구) 이인영(장년부 13-25)

-백일장

- 대상 : 옥유진(초등부 6-3)
- 금상 : 김혜진(초등부 6)
- 은상 : 박주원(초등부 4-5)
- 동상 : 장하늘(초등부 5-5) 이세라(초등부 5-5)

-그림그리기

- 대상 : 김송화(초등부 5-6)
- 금상 : 박세민(유치부)
- 은상 : 홍여주(유년부 2-6) 민승기(사랑부)
- 동상 : 김예담(유치부) 김수민(초등부 4-1) 박건영(사랑부)



이 호 목사 초청 전교인 연합 찬양예배

주제 -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주제로 이호 목사(기쁨누리교회 담임)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왜곡된 국가관이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때에 이호 목사를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루셨는지 명쾌한 역사적 반증을 통해 듣게 될 것이다. 유년부 부터 청년 1,2부, 장년부 모든 세대들이 참

석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 이 호 목사 약력 -

- 현) 경인여대 외래교수
- 현)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대표
- 저서 : 진일청산에 대한 성서적 입장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 설교집 - 칠전팔기의 대한민국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주일 I · II · III부 예배 - 성찬식/ 맥추감사헌금 드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

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다음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준비하여 드린다.

제 6 회 장로교의 날

7월10일(목) 오후 7:00 / 올림픽 홀(올림픽공원 내)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계 및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장로교 성도들이 모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회로 모이고 있는 '장로교의 날' 행사가 올해도 계속된다. 이번 제6회 장로교의 날 행사는 7월10일(목) 오후7시, 올림픽 홀(올림픽공원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장로교 정체성 회복운동과 연합정신의 구현, 나눔과 섬김 실천을 이번 행사의 방침

으로 세웠다. 한국장로교 목회자, 장로교 지도자, 일반 성도 4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 서울교회는 찬양대 100명을 지원한다. 찬양대의 복장은 남성 - 흰색 상의 검정 하의, 여성 - 흰색 상의 검은색 하의(스커트나 바지 무방)이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5)

(문 135) 잠22:6은 믿는 자의 자녀를 위한 말씀인가요?

(답)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히브리어 hanok lannaar는 소년을 훈련하라(train) 또는 가르치라(ignite)입니다.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이 동사는 가르치라 보다는 집이나 성전을 봉헌하라(신20:5, 왕상8:63, 대하7:5) 또는 제물을 바치라(민7:10)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어 h-n-k와 어원이 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즉 신들에게 드리라 또는 신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22:6말씀은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라' 또는 '그의 미래 책임을 위해 아이를 준비시키라'

'성년기를 위해 아이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은 al-pi darko인데 al-pi는 '따라' 즉 측량 후 또는 '따라서'입니다. darko는 derek(길)에서 왔는데 행동의 습관 또는 성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의 빛 속에서 그의 공동체의 표준에 따라 그에게 적당한 길을 따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22:6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15절에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모든 아이들에게 반항심과 미련함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징계하는 채찍이 있는 집의 아이들에겐 모두 미련함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가 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부모 밑의 자녀는 미련함에서 벗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지도안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진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진리로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엡6:4) 이 같은 훈련과 교훈은 가정에서 주어진 사회생활이나 개인적 만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그들 삶에 놀랍고 완전한 계획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신실하게 따르고 그의 자녀들에게 실천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 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최선을 다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14 홍해작전

4행시, 7행시

박주원 (초등부 4-5)

천 : 천상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로 : 노래로 모든 순례자들이
 역 :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 :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승필 (고등부 1-4)

천 :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주님
 로 : 노쇠하고 병든 자도 약하고 연약한 자도
 역 : 역사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 : 정말로 구원을 원하는 자라면
 그 안의 구원의 빛을 볼지어다.

김정숙8 (청·장년부)

천 : 천국행 열차를 타자!
 로 : 노선 변경하지 말고
 역 : 역경이 아무리 닥쳐와도
 정 : 정말! 본향을 향해 달려가자!

Gaichuang Panmei (영어예배부)

P : Persevering in Journey
 I : Illuminating in the Spirit
 L : Longing to reach the mark
 G : God being our goal
 R : Rendering our best service to God
 in our journey
 I : Immanuel our guide(guidance)
 M : Marching toward (forward)
 the goal

홍해작전을 마치며



이준호 집사 (홍해작전 기획부장)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도 내 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찬 바람이 부나 묵묵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절망의 수렁과 고난의 산을 지나 허영의 시장과 실수의 벼랑을 거쳐 천성 문을 향하는 동안 때로는 아름다운 궁전과 기쁨의 산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천성의 좁은 문을 들어설 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 시간 서울교회의 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소리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고 일일이 응답하셨으며 마침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교회의 다음세대들이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서울교회의 비전을 이룰 미래의 지도자들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으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서울 교회 성도님들 모두 천성문에 들어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성으로 향해 나갑니다



옥유진 (초등부 6-3) 산문부 대상

6월 6일부터 시작된 특별새벽기도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를 주제로 천로역정은 시작되었다. 이때는 현충일이라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셨다. 나는 홍해작전이 꽤 기대된 지라 무척 설레고 빨리 가고 싶었다. 먼저 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찬. 고집씨와 연약씨가 크리스찬을 말리러 왔다. 결국에는 나약씨는 크리스찬을 따라 좁은 문으로 향했다. 여러 성경이야기, 천성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가다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수렁에 빠질지, 안 빠

질지를 두고 설교를 하시는 박노철 목사님은 개봉박두를 외치셨다. 내가 천로역정에 빠져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30여분 만에 천로역정 책을 다 읽어버렸다. 평소 책을 싫어했던 나는 내가 너무 신기했다. 너무 재밌어서 자지도 않고 읽어버렸다.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지은 죄를 지고 좁은 문을 향했다. 무거운 죄짐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기만씨의 꾀에 넘어가 버렸다. 그 도중 선교사를 만나 다시 도움을 받은 크리스찬은 곧고 바로고 좁은 길로 향했다. 나도 다짐을 했다.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 시험이나 시련을 겪을 때 언제나 곧고 좁은 길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나는 생각하고 결심한다.



그림그리기 대상 : 김승화 (초등부 5-6)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벗는 크리스찬



그림그리기 금상 : 박세민 (유치부) 악과 싸우는 크리스찬

2014 홍해작전 백일장 심사평

순례자의 삶과 의미 잘 드러내



나소정 집사 (12교구, 문학박사)

올해 홍해작전 백일장에서는 '천로역정'을 주제로 100여 편에 달하는 국영문 4행시와 산문, 회화 작품들이 심사에 부쳐졌다. 산문 부문은 대상에서 동상까지를 모두 초등부 학생들이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고, 4행시와 회화 부문은 각 교회학교 및 장년부 등에 고루 돌아갔다. 심사의 기준은 예년보다 한층 엄격했다. 주제의 전달과 표현, 전반적인 조화와 안정감 있는 구성 등을 보았고, 무엇보다 '천로역정'의 의미를 밀도

있게 해석하는 한편 이를 관찰시키고 구현하는 작품의 완성도가 당락을 가르는 주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노작(勞作)들이 다수 제출되었으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들은 대개 평이하면서도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구조화가 돋보이고 여기에 은유와 상징 등의 수법을 통해 참신하고 독특한 접근을 보여주어 특화에 성공한 것들이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선정된 작품들에 박수를 보내며, 천로역정 속에 담긴 순례자의 삶과 그 의미를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2014 방글라데시단기선교단

방글라데시에 복음을!



김형상 집사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장)

2014년 여름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단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8월 9일(토)부터 16일(토)까지 이슬람이 85% 이상인 방글라데시로 26명이 파송됩니다. 국민소득이 낮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방글라데시의 북부 국경지대 소수종족 하중족 마을과 조남해 선교사님(어린이 호스텔사역)과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님(의료사역), 그리고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님

(다카장로교회)의 사역지에서 의료사역, 이미용 사역, 어린이 사역 등의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단기선교 사역과 관련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 기타등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제품도 가능하오니 컴퓨터와 기타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께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이 현지사역에 필요하므로 후원하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후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봉투에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후원금”이라 적고 목적현금으로 교회에 현금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단기선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 노숙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이 모든 일정을 주님의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마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조 및 문의: 단장 김형상 집사 010-5219-8823
회계 송행희 집사 010-3330-2355

- 후원요청 물품 -

노트북컴퓨터 5대, 기타와 기타튜너 5대, 중고 핸드폰, 성인용 여름 티셔츠, 약세사리, 모기장, 모기약, 썬크림, 상비 의약품(타이레놀, 항생제, 구충제, 뿌리는 파스 또는 맨소래담), 어린이용 장난감, 문구용품(색연필,크레파스,노트,볼펜 등), 운동용품(축구공, 배드민턴 라켓세트 등), 남자 아이들(6-15세)용 티셔츠와 팬티, 여자아이들(4-9세)용 티셔츠와 팬티,머리끈,머리띠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모여 방글라데시 국가 개관과 방글라데시 언어훈련, 서울교회 선교정책과 현황, 단기선교의 목적과 유의 등을 공부하며 방글라데시에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7월 1일(화) 군선교특별위원회를 소집한다. 7월 2일(수)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기독교운동본부 예정(통합측) 정호지도자 모임을 소집한다. 7월 4일(금) 기독교운동본부 2차 공동대표 모임을 소집한다. 7월 5일(토) 사랑의쌀운동 조찬기도회, 울란바타르대학이사회 개회설교를 한다.
- 이갑진 장로 7.1~7.8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켄에서 열리는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대회 주관을 위한 선교출장
- 박사학위 수여 : 4교구 서문상 성도(서경학 집사, 이영숙 권사 장남) 영국런던의대 뇌과학박사
- 공연 : 11교구 최수환 집사 파이프오르간연주회 6월 30일(월) 7:30 경동교회
- 득녀: 10교구 김대훈 집사 유보영 집사(백정순 권사 장남 가정)
- 득남: 4교구 서한상 성도 (서경학 집사, 이영숙 권사 차남)
- 주일식당봉사 :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629) 이삭선교회 도르기전도회(75)
- 금주의 식사 제공 : 노명자집사, 신하근 성도 가정 정춘혜권사, 정병대 성도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은 어린이 사역, 의료사역, 미용사역 등 현지 파송선교사님들을 도와 각 분야에서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순례의 삶을 살도록
2. 담임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께서 카자흐스탄 선교지를 방문하실 때 주님의 마음과 선교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3.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이 잘 준비되어서 영육간에 가뭄을 면치 못하는 선교지에 복음의 소낙비로 쓰임 받도록

6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5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 2014년 세 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고민정1 김기현3 김희수3 노미숙 문정희 박경화 백인아 서기호 신성호 신영자,윤혜선 이명학

이상원4 주혜숙 조아라1 지민가 정서는 최용훈 흥기 일 흥석준 계: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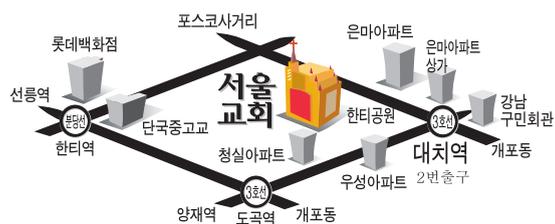
·입교자 : 김주호 김지혜5 류혜진 박건희2 하준후 계:5명

·유아세례자 : 김진호 김민준2 배윤주1 배태랑 백하은 유아진 윤하진 계:7명, 총:32명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